2025년도 문화유산위원회

제10차 민속문화유산분과 회의록

▣ 일 시 : 2025. 10. 14.(화) 14:00

▣ 장 소 : 국가유산청 대회의실

▣ 출석위원 : 김왕직, 구미래, 남해경, 이창안, 이은하, 홍석주, 최원석, 최종희, 이은주, 천진기 (이상 10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유 산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ㅇ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ㅇ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ㅇ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ㅇ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ㅇ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 되며,
- ㅇ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유산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문화유산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칠곡 매원마을 내 소방시설 및 가로등 설치	(공개)
2	성주 한개마을 내 오수관로 설치	(공개)
3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노후담장 철거 및 한식담장 설치	(공개)
4	함양 일두고택 주변 미술관 신축	(공개)
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가민속문화유산 국외(일본) 반출	(공개)
【검토사항】		
6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7	현상변경 등 자체처리 결과 보고	(공개)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25-10-01

1. 칠곡 매원마을 내 소방시설 및 가로등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국가등록문화유산 「칠곡 매원마을」 내 소방시설 및 가로등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유산 「칠곡 매원마을」 내 소방시설 및 가로등 설치가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칠곡 매원마을」 등록구역 내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칠곡군수

(2) 문화유산명 : 국가등록문화유산「칠곡 매원마을」

○ 소 재 지 : 경상북도 칠곡군 매원3길 104-5 (왜관읍)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매원리 772-1 일원

(4) 신청내용 : 소방시설 및 가로등 설치

○ 소방 : 옥외소화전, 소화전함, 소화전안내판 5개소, 스테인리스관 1,790m

○ 가로등 : 가로등(전주부착형) 신설 4본, 가로등 교체 34본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가로등·소화전 디자인 조정 및 물탱크 매립 방안 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안건번호 민속 2025-10-02

2. 성주 한개마을 내 오수관로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성주 한개마을」 내 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성주 한개마을」 내 오수관로 설치가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성주 한개마을」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내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성주군수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성주 한개마을」

○ 소 재 지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390 일원

(4) 신청내용 : 오수관로 신설 및 배수설비 정비

○ 오수관로 신설 : D150, L=728m

○ 배수설비 정비 : 2가구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안건번호 민속 2025-10-03

3.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노후담장 철거 및 한식담장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노후담장 철거 및 한식담장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청송 송소 고택」 주변 노후담장 철거 및 한식담장 설치가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상, 1~2구역(이격거리 약 50~280m)에 해당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청송군수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청송 송소 고택」

○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15-2 (덕천리)

(3) 신청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송소고택길 25 등 8필지

(4) 신청내용 : 노후담장 철거 및 한식담장 설치

연번	상세주소	문화재와의 이격거리(m)	담장 규모/형태		
			길이(m)	높이(m)	형태
1	송소고택길 25	49	18.5	1.4	토석담쌓기
2	송소고택길 25-18	53	16.0	1.3	〃
3	송소고택길 39-1	184	42.0	1.1	〃
4	송소고택길 45-12	277	24.5	1.3	와편담쌓기
5	덕천길 59	187	12.1	1.3	토석담쌓기
6	덕천길 47	72	12.0	1.3	〃
7	덕천길 50-5	130	17.4	1.3	막돌 빗쌓기
8	덕천길 21	104	57.0	1.35	〃
계	8개소		199.5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막돌 빗쌓기’는 마을 내에서 설치된 담장 형태로 조정
- 담장 지붕 수키와 마감은 와구토로 시공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10명

안건번호 민속 2025-10-04

4. 함양 일두고택 주변 미술관 신축

가. 제안사항

경남 함양군 소재 국가민속문화유산「함양 일두고택」주변 건축 신축(미술관)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민속문화유산 「함양 일두고택」주변 건축 신축(미술관)이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업예정지는「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상 1구역(이격거리 약 80m)에 해당함.

* (**경남 문화유산자료**) 함양 풍천노씨대종가, 함양 노참판댁 고가(인접)

※ 제4차 경남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 분과위원회(‘25.8.29.)결과: **원안가결**(사업시행하되, 노씨대종가와 직접 조망되는 입구에 조경 또는 차폐식수 조성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O O O

(2) 문화유산명 : 국가민속문화유산「함양 일두고택」

○ 소 재 지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3) 신청위치 : 경남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309번지

(4) 신청내용 : 개평리 풍천노씨대종중 건물신축(미술관)공사

○ 설치규모 : 2개동(미술관, 화장실), 대지면적 227㎡

용도	층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높이
미술관	1층	72.90㎡	126.77㎡	일반 목구조	5.86m
화장실	1층	3.78㎡	3.78㎡		4.56m

(5) 신청인 의견 : 종중 소장 미술품을 전시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로 활용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안건번호 민속 2025-10-05

5.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가민속문화유산 국외(일본) 반출 심의

가. 제안사항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전시 <한국미술의 보물상자-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초대전> 개최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가민속문화유산을 국외(일본)로 반출하고자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전시 <한국미술의 보물상자-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초대전> 개최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그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국립중앙박물관장

(2) 대상 문화유산: 총 2건 2점

○ 개 요

연번	명칭	수량	크기(cm)	재질	시대
1	「적의본 및 폐슬본」중 '적의본'	1점	길이 154.5 너비 111	종이에 채색	대한제국
2	「흥선대원군 기린흉배」	1점	25.5×23.1	견, 금사, 종이	조선 후기

○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 소유자(관리자) : 국유(국립중앙박물관)

(3) 국외 반출 및 전시 계획

○ 전시목적: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표 국립박물관이 양국의 미술에 대한 특별전을 교환 개최함으로써 양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및 가치 발견의 기회 제공

○ 전시장소 : 일본도쿄국립박물관 본관 특별 1·2실

○ 전시유물 : 국립중앙박물관 및 도쿄박물관 소장 한국미술품 총 33건 48점

○ 전시기간 : '26.2.10.(화)~4.5.(일) / 49일간(매주 월 휴관, 3.30.제외)

○ 전시방향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려~조선시대 명품과 함께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대표 한국미술품 함께 전시

○ 전시구성 : (1부) 고려 불교미술과 공예, (2부) 조선왕실의 미술

※ 심의 대상 국가민속문화유산은 제2부 '조선왕조의 왕실문화' 섹션에 전시 예정

○ 주요 추진 일정

- **('26.2.2~2.6.) 전시품 반출 및 전시 호송관 파견**
- ('26.2.9.) 개막행사
- ('26.2.10.~4.5.) 전시 일반 공개
- **('26.4.6.~4.10.) 전시품 철수 및 국내 반입**

(4) 기타사항

○(보험) 전시 대상 확정 후 국외 반출을 위한 보험가입(Wall-to-Wall) 예정 (일본측)

라. 현장조사 의견(O O O/2025.10.1)

○ 조선시대 왕실 복식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판단되어 전시 필요성 인정되며 전시계획 적정함

○ '적의본'은 접힌 부분 없이 편편하게 펼친 상태로 포장, 운송 필요함

○ 「흥선대원군 기린흉배」는 반출에 앞서 가장자리 금실 고정 및 뒷면 배접지 보존처리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흥선대원군 기린흉배' 보존처리(금사 고정 및 배접지 안정화) 후 반출
- 포장·운송 시 '적의본' 접히지 않도록 유의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25-10-06

6.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온양민속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갑주와 갑주함’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2025. 2. 27.): 원안가결
-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신청(2025. 4. 21.)
- 관계전문가 지정조사 실시(2025. 7. 11.)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충청남도지사

(2) 문화유산명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충청남도 민속문화유산/2010.7.30. 지정)

○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23 온양민속박물관

○ 소유자/관리자 : (재)구정문화재단 (대표자 조○○)

○ 수 량 : 4건 5점
(갑옷 1점, 투구 1점, 갑주함 1점, 간주함 및 보자기 각 1점)

○ 재료 및 크기

명칭	재료	크기(cm)	비고
갑옷	견직물, 구리, 금, 칠보 등	길이 103 화장 62.3 품 64	
투구	견직물, 모피, 철, 은 등	감투 13, 장신구 23, 이마가리개 6.6, 드림 26	
갑주함	나무, 옻칠, 구리 등	가로 74.2, 세로 44, 높이 18.4	
간주함	(함)나무, 옻칠, 구리 등 (보자기)견	(함)가로 27.8, 세로 8, 높이 8.3 (보자기)가로 36, 세로 37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O O O>

○ (완전성) 갑옷과 투구뿐 아니라 갑주함, 간주함, 보자기까지 일습을 구성하는 품목이 모두 남아 있음. 일부 장식이 소실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구조와 주요 문양, 금속 장식, 모피 선단 등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높은 완전성을 보여줌.

○ (희소성) 국내에 현존하는 갑주 가운데 사조룡(四爪龍) 문양을 주문양으로 사용한 유일한 사례임. 투구의 감투에 은입사(銀入絲) 기법을 적용한 예 역시 이 유물이 유일하여, 희소성이 매우 높음.

○ (역사성) 19세기 후기에 왕실 의장용 또는 전시용으로 제작·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왕실 복식문화와 공예 수준, 군례 장엄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로 평가됨

○ (예술성) 두석, 투조, 파란, 은입사 등 최고 수준의 전통 공예 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며, 용, 호랑이, 봉황, 여의주, 일월 등 상징 문양을 정교하게 배치하여 뛰어난 조형성을 보여줌.

○ (학술성) 유럽과 미국 등 국외 및 국내에 전승되는 갑주와의 비교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 국내 유일의 완형 갑주 일습으로서 왕실 무구 특별전의 기획, 디지털 아카이빙, 국제 비교 연구 협력에도 적용 가능함. 직물·금속·모피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복식과 공예 기술을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님.

<O O O>

○ (갑옷 양식의 연속성) 조선 전기 『국조오례의서례』에 규정된 두정갑 계열의 갑옷을 계승하고 있는 전갑(氈甲)임. 직물로 갑옷을 만들고 두정을 박는 양식이 19세기까지 이어져 왔고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성 품목의 완전성) 국내 소장 유물 중 갑옷, 투구, 갑주함, 정수리 장식을 담는 투구 장식함, 정수리 장식을 싸는 보자기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사례는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유물이 유일. 기 지정된 갑주 관련 보물, 국가민속유산, 지역문화유산에서도 볼 수 없는, 구성품목 일습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사료적 가치는 물론 희소가치가 있음.

○ (형태 및 외관의 온전성) 갑주 일습의 보관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임. 일부 손상된 부분도 있으나 형태 및 외관, 직물, 금속장식, 부속품 등의 상태가 매우 온전하다는 점에서 학술적·사료적 가치는 물론 희소가치가 있음.

○ (제작기법의 독보적 예술성) 단순한 군복이 아니라 장인의 숙련된 공예기술과 정성, 미적 가치가 집약된 정교한 예술작품. 갑옷과 투구에 사조룡이 장식된 점, 투구 정수리 장식 최상단에 황동 보주가 장식된 점, 정수리 장식의 전보구슬과 감투 측면의 공작장식이 황동으로 제작된 점 등은 현전하는 국내 갑옷과 투구에서는 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법임. 조형적 · 예술적 가치 높음.

<O O O>

○ 핵심 유물인 갑옷과 투구뿐 아니라 보관용 함과 보자기가 온전히 남아 있고 제작 수준과 전체적인 보존상태가 모두 우수한 희소한 사례로서, 우리나라 갑주의 역사와 구성법 및 제작법, 특징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음

○ 해당 문화유산이 지닌 학술적 가치와 완전성 및 희소성, 높은 완성도와 예술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보존·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지정조사보고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 24.>

(앞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5.7.11.	대상문화유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조사자		성 명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유산 종류	국가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 명칭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생략)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 내용 <붙임1>에 기재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 내용 <붙임2>에 기재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 (생략)			
		<보호물> (생략)			
		<보호구역> (생략)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생략)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붙임1>에 포함하여 기술			
종합의견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는 갑옷과 투구 뿐 아니라 갑주함, 간주함, 간주 싸개용 보자기까지 일습으로 전해지는 국내 유일의 유물이다. 특정 인물이나 왕세자의 전용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투구와 갑주에 장식된 사조룡 문양, 은입사 감투의 용·봉 장식, 정교한 투조·파란 장식 등은 왕실 의장용 갑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투구에 사용된 끈의 운보문을 통해 19세기 후기에 제작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 제작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파악된다. 또한 보관 용품까지 함께 전승된 사례라는 점에서 희소성과 완전성이 매우 높으며,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므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전시·교육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9 월 17 일

제출자 (서명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붙임1>

연혁·유래 및 특징

ㅇ 지정현황 : 충청남도 시도민속문화유산 (2010.7.30. 지정)
ㅇ 명　　칭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ㅇ 소유자(관리자) : (재)구정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23 온양민속박물관
ㅇ 수　　량 : 4건 5점
ㅇ 규격·재질 및 형식 등 : [상세자료] 참조
ㅇ 조성연대 : 19세기 후기

ㅇ 유　래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갑주 일습(갑옷, 투구, 갑주함, 간주갑, 보자기, 그림 2~5)은 본래 영조 대 병마절도사를 지낸 전양군 이익필(全陽君 李益弼, 1674-1751, 그림 1)의 집안에서 가전(家傳)되어 내려온 것이다. 1971년 이병도 박사가 감정하면서 이를 "영조 또는 정조 임금의 금갑(金甲)"으로 추정한 바 있으며, 이후 이익필의 후손 이일로(李一魯)가 소장하던 유물을 1975년 계몽사 김원대 회장이 온양민속박물관 개관과 함께 구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림1. 이익필(1674-1751) 초상
© 온양민속박물관

ㅇ 내용 및 특징

그림 2.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옷(전·후)

그림 3. 투구

그림 4. 갑주함

그림 5 간주함과 보자기

조사 대상 유물은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된 갑주 일습으로, 갑옷(그림 2), 투구(그림 3), 갑주함(그림 4), 간주함과 보자기(그림 5)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물은 영조 대에 병마절도사를 지낸 전양군 이익필(1674~1751)의 집안에서 가전되어 내려온 것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일습이 완전하게 전승된 유일한 사례로 평가된다.
유물의 치수와 별도의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이미지는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제출한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둔다.

① 갑옷 1점

1. 형태와 구조

조선 후기 전형적인 포형 전갑(氈甲)의 형식을 보인다. 겉감은 홍색 전(氈)이고 안감은 남색 운보문단이다. 갑옷의 뒷길이는 103㎝, 화장은 62.3㎝, 뒷품은 64㎝이다. 뉴어크박물관 소장 갑옷의 치수는 뒷길이 108㎝, 화장 63㎝, 뒷품 63㎝로, 길이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

을 뿐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겉감과 안감을 연결하는 방식, 모피 털을 갑옷에 바느질한 기법, 호박 단추와 다회끈목의 사용 등에서도 흡사한 특징을 보인다.

갑옷의 가장자리와 트임부분은 5~6㎝ 너비의 모피 털을 둘렀다. 앞쪽 좌우 옆선에서 5㎝ 들어온 부분에 너비 12㎝, 길이 75~76㎝의 안감과 동일한 남색 운보문단의 끈이 달려 있다(그림 6).

갑찰 없이 두정 장식을 하였으며 짧은 소매와 무릎 길이의 길이, 좌우 트임과 뒤트임이 있어 활동성을 고려하였다. 어깨에는 용 형태의 견철(肩鐵)을 부착하여 착용 시 무게 균형과 위엄을 유지하도록 하였다(그림 7). 실제 갑옷에서는 요대를 두른 후 남색 전대를 다시 두르는데 이처럼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옷처럼 남색 끈이 달려 있는 것은 실제 착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시 등을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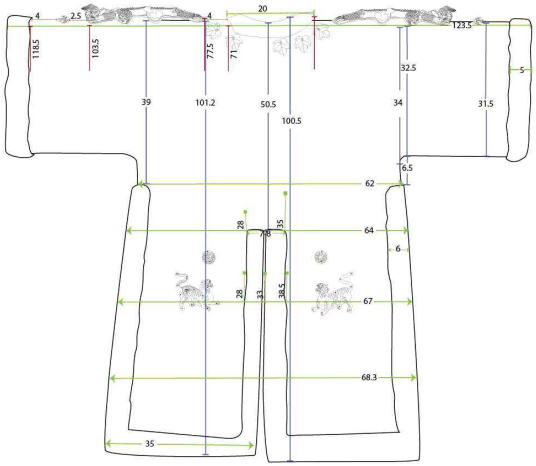


그림 6. 갑옷 뒤 치수

그림 7. 용 형태의 견철

2. 재질과 장식

겉감은 홍색 전(氈, 그림 8), 안감과 허리띠는 청색 운보문단(雲寶紋緞, 그림 9)을 사용하였다. 「정하 운보문 판독법」에 따르면 안감과 허리띠의 운보문은 [첩승-서보-쌍서각-연환-우향-첩승-서보-쌍서각-쌍전보](그림 10)로 판독되며, 이러한 문양은 헌종 14년(1848) 순화궁접초의 『사절복색자장요람』 책의(冊衣)에서 확인되기 시작하여 20세기까지 사용되었던 예가 있다. 이는 본 갑옷의 제작 연대를 19세기 중기 이후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가장자리에는 털을 둘러 장식성을 높였으며, 앞 중심부에는 매화형 파란 장식을 올린 호박 단추 3개와 다회끈목으로 만든 암단추를 달아 여미도록 하였다. 현재는 다회끈목의 거죽이 대부분 훼손되어 밑둥 부분만 남아 있으며, 속심에 사용된 홍색 실만 고리 형태로 잔존한다(그림 11).

갑옷 전후면에 고정된 금속 두정(頭釘)은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는데 실용적인 기능보다는 장식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면 왼쪽 소매 상단의 두정 1개가 탈락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온전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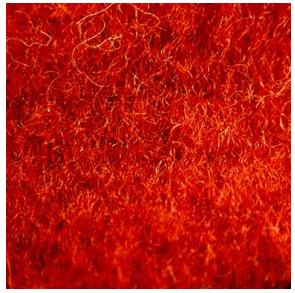


그림 8. 갑옷 소재 전(氈)
조사자 촬영

그림 9. 청색
운보문단(안감 · 허리띠)

그림 11. 가장자리 담비털과
매화형 파란 장식을 올린 호박
단추
© 조사자

그림 10. 보문 5종 ①첩승 ②서보 ③쌍서각 ④연환 ⑤전보

3. 문양과 상징성

그림 12. 여의주를 향한 사조룡(전면)

그림 13. 여의주를 향한 호랑이(뒷면)

그림 14. 목둘레 오동잎 장식 (앞면)

그림 15. 고대 부분의 오동잎 5개과 일월, 금환 2개(뒷면)

전면에는 여의주를 향하는 사조룡(四爪龍)을 좌우 대칭으로 한 쌍 배치하였고(그림 12), 뒷면에는 여의주를 향한 호랑이 한 쌍을 역시 좌우 대칭으로 배열하였다(그림 13). 목둘레에는 오동잎 장식판을 달아 위계와 권위를 드러냈는데, 앞쪽 왼편 길에는 다섯 개 중 한 개가 탈락된 오동잎이 남아 있으며, 오른편에는 온전한 다섯 개가 장식되어 있다(그림 14). 또한 뒤 고대 부분에는 여섯 개 중 한 개가 탈락된 오동잎이 배치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일월을 상징하는 금원과 금환 한 쌍이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그림 15). 이러한 문양 구성은 현재까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품과 뉴어크박물관 소장 갑옷에서만 확인된다.

오동은 봉황의 서식처로 인식되어 성왕(聖王)의 출현을 알리는 길상목(吉祥木)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오동잎 장식은 성덕이 깃든 정치적 공간을 상징한다. 아울러 용과 호랑이가 결합된 '용호(龍虎)' 개념은 왕권과 신하의 충성, 더 나아가 좌청룡과 우백호로 대표되는 우주의 질서를 투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써 본 갑옷의 문양 장식은 왕실의 최고 위엄을 상징하는 장치로 파악된다.

4. 공예적 특징

사조룡, 호랑이, 여의주, 오동잎, 두정 등의 두석 장식은 투조(透彫)와 부조 등 수준 높은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특히 네 마디로 구성된 견철의 용 장식은 수구 쪽의 여의주를 향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졌으며(그림 16), 움직임에 따라 입과 혀가 연동되도록 정교하게 제작된 점이 주목된다. 견철의 분철 부분에는 뒷조각의 머리 부분에 구름 모양 장식을 덧붙여 갈라진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또한 용두의 귀 안쪽과 혀를 붉게 칠하여 세부 표현을 더욱 강조하였다.

견철을 받치는 받침[波湯]은 겉면에 청색 운문단을, 안감에는 옅은 자색 문단을 사용하였으며, 겉과 안 사이에 흰색 심을 넣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견철의 모양을 따라

약간 크게 만든 바탕 가장자리에는 여러 겹의 견사를 사용하여 새들스티치로 마감・장식하였고, 이를 통해 견철을 견고하게 고정하였다(그림 17). 아울러 갑옷 전후면의 두정 배열과 장식의 배치가 정연하여(그림 2), 전체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다.

그림 16. 투조 여의주를 향한 용 형태의 견철

그림 17. 새들 스티치로 마감한 견철 받침
© 조사자

② 투구 1점

1. 형태와 구조

투구(그림 3)는 크게 정수리 장식, 감투, 드림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세부적으로는 감투(冠套), 근철(筋鐵), 대선(帶線), 대철(帶鐵), 차양(遮陽), 이마가리개, 드림(垂簾)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투는 철제 반구형 구조로 제작되었으며, 근철과 대철을 덧대어 구조적 강도를 보강하였다. 또한 차양과 눈 주위 곡선을 따른 이마가리개가 부착되어 있어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다.

그림 18. 투구 안쪽

드림은 좌우 두 매와 뒷드림 한 매로 구성되어 얼굴과 목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겉감은 갑옷과 동일한 홍색 전(氈)을 사용하였고, 안감은 청색 운보문단으로 마감하였다. 감투 안쪽에는 붉은색 가죽 일곱 조각을 덧붙여 마무리하였으며, 하단 가장자리에는 S자형 은영자(銀纓子)를 달아 검정 무문단 끈을 연결하였다. 좌우 드림 끝에는 안쪽으로 다홍색 운문단 끈을 달아 장식하였다(그림 18). 투구의 세부 명칭은 <그림 19>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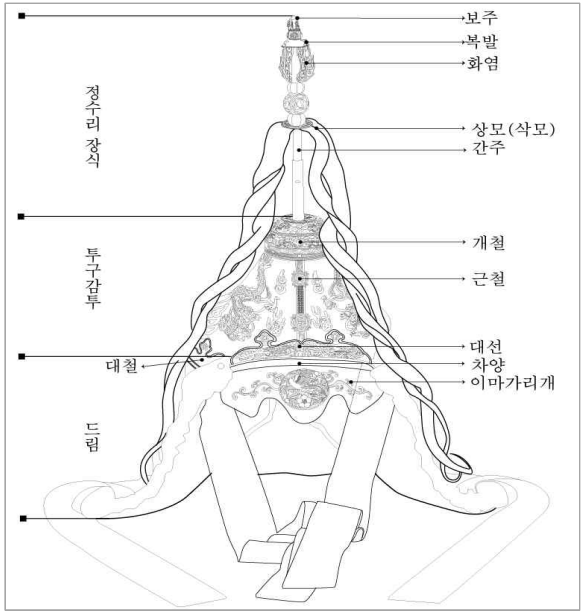


그림 19. 투구의 구조와 각 부분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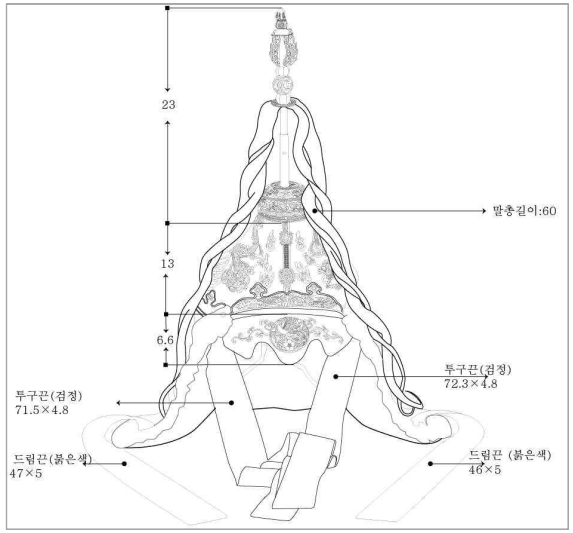


그림 20. 투구의 세부 치수

정수리 장식에서 개철까지의 길이는 23㎝이며, 감투의 길이는 13㎝, 이마가리개의 길이는 6.6㎝이다. 옆드림은 길이 26㎝, 부착부분의 너비 22.5㎝이며, 뒷드림은 길이 26㎝, 부착부분 너비 24.5㎝이다. 검은색 감투 끈은 오른쪽 길이 71.5㎝, 왼쪽 길이 72.3㎝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폭은 4.8㎝이다. 붉은색 드림 끈은 오른쪽 47㎝, 왼쪽 46㎝, 너비 5㎝이다. 상모는 붉게 염색한 말총으로 제작되었으며, 길이는 약 60㎝에 이른다(그림 20).

2. 재질과 기법

감투(그림 21)는 철제 바탕에 은입사(銀入絲) 기법을 사용하여 모란만초문과 만자문을 장식하였다. 또한 황동으로 여의주를 향하는 사조룡 한 쌍과 대선, 차양, 이마가리개를 제작하였는데, 이들은 투조와 부조 기법을 활용하여 정교하게 표현되었다. 감투의 정면에는 중앙 근철을 중심으로 좌우에 용 장식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는 갑옷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사조룡 형상이다.

그림 21. 감투 앞면、측면、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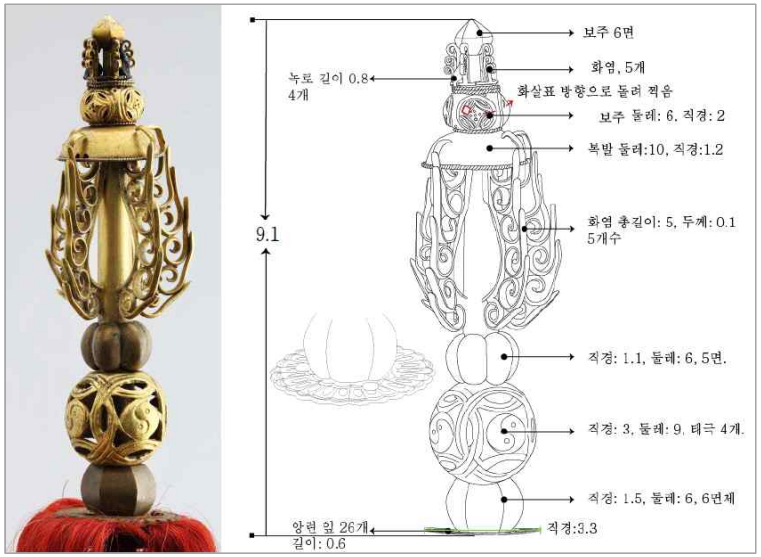


그림 22. 투구 정수리 장식과 장식 세부 문양과 치수

그림 23. 투구 정수리에 사용된 융복용 금정자
© 조사자

정수리 장식은 황동으로 제작된 꽃봉오리형 보주를 중심으로 화염문과 파란 원환을 둘렀다(그림 22). 하단에는 세 곳에 작은 구멍이 한 쌍씩 확인되는데, 공작우를 달 수 있는 고리가 없는 점으로 보아 전립용 정자가 아니라 융복용 입자에 사용하는 '금정자'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3). 이 금정자와 비슷한 것이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에 있는데 그 유물은 전립용 정자이며 하단에 박쥐무늬를 양각으로 장식한 것이 다른 점이다.

투구 상단에는 붉은색 말총 상모가 부착되어 착용 시 장식성을 극대화하였으며, 늘어진 상모는 좌우로 나누어 꼬아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그림 21).

드림의 겉감은 홍색 전(氈), 안감은 청색 운보문단(雲寶紋緞, 그림 9)이며, 가장자리는 담비털로 둘렀다. 좌우 드림 하단 거죽 쪽에는 다홍색 운보문단 끈이 달려 있으나, 좁아 전체 보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19세기 후반에는 정형화된 사합여의형 운문 외에 새로운 운문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운두가 단순해지고 꼬리가 운두에서 분리되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24).

투구의 드림 끈에서 확인된 보문은 6종류로, 일방향 운두의 크기는 2.5×4.2㎝에 해당하여 팔운문으로 분류된다. 즉, 옷감 한 폭에 운문 8개가 배열된 형태이다. 운두와 만자꼬리의 상·하 꼬리가 운두에서 벌어진 형태로, 판독된 보문은 ①첩승 ②보주 ③여의 ④만자 ⑤화보 ⑥서각이다(그림 25).

이 운보문은 본래 4조 보문으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김병학(金炳學, 1821~1879) 묘 출토 운문사 철릭(그림 26)과 세종대학교박물관 소장 순종(재위 1907~1910) 황룡포 유물(그림 27)의 문양과 같다. ①만자 ②보개 ③보주 ④서각 ⑤쌍전보 ⑥여의 ⑦작자 ⑧첩승 ⑨화보 등 9종이 사용되었다. 「정하 운보문 판독법」에 따른 배열을 확인한 결과, 확인된 4조 보문은 다음과 같다. ❶ 만자-서각-보주-첩승 ❷ 여의-첩승-금정-쌍전보 ❸ 보개-쌍전보-화보-여의 ❹ 첩승-무보-화보-서각(그림 33 참조)

그림 24. 운두와 꼬리의 분리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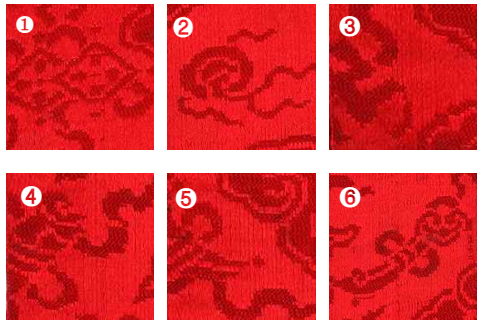


그림 25. 드림 끈에 사용된 운보문단의 보문 6종
①첩승 ②보주 ③만자 ④화보 ⑤서각 ⑥여의

그림 26. 김병학 묘 철릭의 운보문
(4조 보문) © 온양민속박물관

그림 27. 순종 황룡포의 운보문
(4조 운문) © 세종대학교박물관

그림 28. 19세기 후기 운보문의 4조 보문
© 조사자

투구의 드림 끈이 부착한 상태를 보면 제작 당시에 것으로 판단된다. 홍색 끈의 문양이 김병학 묘 철릭과 순종 황룡포의 문양과 같은 것이므로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는 19세기 후기 고종대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문양과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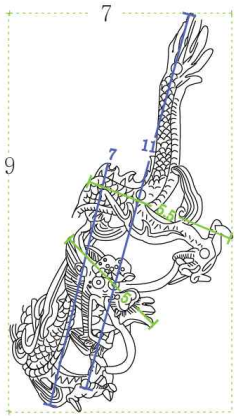


그림 29 앞면 용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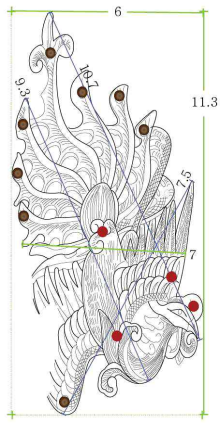


그림 30 뒷면 봉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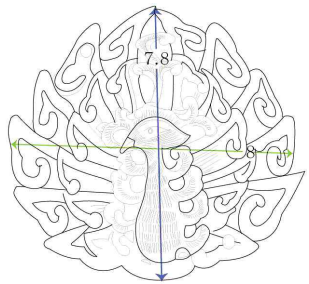


그림 31 측면 봉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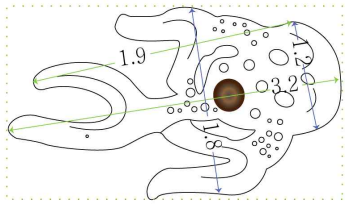


그림 32 여의주 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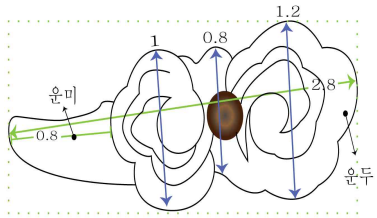


그림 33 운문 치수

감투와 차양, 대철 등에는 용・봉황・여의주・구름 문양이 투조 또는 은입사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이마가리개 중앙에는 옥판이 장식되었으며, 그 위에 투조된 봉황과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다. 드림에는 금속제 두정(頭釘)과 여의두(如意頭)가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앞면의 용(7×9㎝, 그림 29)은 각각 여의주를 향해 마주보고 있으며, 상단 꼬리 부근에는 운문 장식이 배치되어 있다. 뒷면의 봉황 역시 중앙 근철을 중심으로 여의주를 향해 좌우에서 마주보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봉황 장식의 너비는 6㎝, 길이는 좌측 11.3㎝, 우측 10.7㎝로 약 0.6㎝의 차이가 확인된다(그림 30). 측면 장식은 기존 보고서에서 '공작'으로 기재되었으나, 목 부분의 갈라진 털 표현에 근거하여 '봉(鳳)'으로 수정한다. 봉 장식의 크기는 높이 6.8㎝, 너비 8㎝이다(그림 31). 용과 봉 장식에는 공통적으로 여의주와 구름이 표현되어 있으며, 여의주의 크기는 길이 3.2㎝, 너비 1.8㎝(그림 32), 운문의 크기는 길이 2.8㎝, 너비 1.2㎝이다(그림 33).

그림 34. 투구 차양과 이마가리개와 중앙의 배치한 백한 무늬의 옥판 여의주

차양 아래쪽의 이마가리개[護額]는 M자 형태로, 중앙 옥판에는 여의주를 탐하는 한 쌍의 용이 가는 선형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마가리개의 둘레는 16.8㎝, 중앙에서 코로 내려오는 부분의 높이는 6.6㎝이다. 여의주가 배치되어야 하는 위치에 지름 5㎝의 옥판이 장식되어 있다. 옥판에는 아래쪽의 오판화(五瓣花)를 위로 날개를 활짝 편 백한(白鷴)이 투조되어 있다. 기존 보고서에서는 봉황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백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림 34). 투조된 백한의 뒷판에는 붉은색 모전을 덧대어, 옥의 백색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처리하였다.

4. 공예적 특징

장식에는 투조, 부조, 은입사, 파란 등 고급 기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정수리 장식은 분리와 조립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보관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전체 구조는 견고성과 장식성을 아울러 갖추어 왕실 공예 기술의 수준을 잘 보여준다.

표 1. 온양민속박물관 갑옷・투구 비교표

구분	투구	갑옷
형태와 구조	감투(冠套)·정수리 장식·드림으로 구성, 차양·이마가리개 부착	포형 전갑(氈甲), 짧은 소매, 무릎 길이, 좌우·뒤트임, 활동성 강조
재질	감투: 철제 + 은입사(銀入絲) 드림 겉감: 홍색 전(氈) 안감: 청색 운보문단 가장자리: 담비털	목 여밈: 호박 단추 3개 허리: 청색 운문단 끈겉감: 홍색 전 안감: 청색 운보문단(雲寶紋緞) 가장자리: 담비털
여밈·부속	감투끈: 흑색 공단 드림끈: 홍색 운보문단	여밈: 밀화단추 3개, 다회끈목(속심 남음) 허리띠: 청색 운문단 끈
장식 문양	감투·차양·대철: 사조룡·봉·여의주·구름 투조·은입사 이마가리개: 옥판·봉황 문양 정수리 장식: 화염보주·파란 원환·국화받침	전면: 사조룡+여의주 후면: 일월+금환+여의주+호랑이 목둘레: 오동잎 장식판
공예 기법	투조·부조·은입사·칠보 복합 사용 정수리 장식은 분리·조립 가능	두정 배열, 투조·부조·파란, 용 형태의 견철, 여의주를 향해 있음
특징적 요소	은입사 감투 → 현존 유일 붉은 말총 상모 부착, 장식성 강조	견철(肩鐵) → 관절식 구조, 움직임에 따라 용마디와 혀가 움직임
의의	사조룡・봉 문양, 은입사 기법 적용 뉴어크 소장품과 동일 제작 추정	사조룡・호랑이 문양 사용 뉴어크 소장품과 동일 제작 추정

③ 갑주함 1점

1. 형태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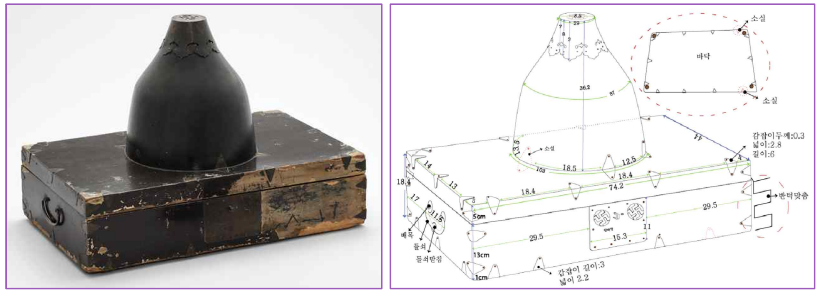


그림 35. 갑주함과 세부 치수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함(그림 35)은 기본적인 직육면체 상자 위에 투구를 수납할 수 있는 감투형 윗부분을 결합한 독특한 구조를 하고 있다. 하부의 갑옷 보관 부분은 가로 74.2㎝, 세로 44㎝의 직사각형이며, 전체 높이는 약 18.4㎝, 뚜껑 부분의 높이는 5㎝이다. 상부의 투구 보관 부분은 원통형으로 올라가다가 높이 16.5㎝ 지점에서 뾰족하게 처리되어 감투 형태를 이룬다. 앞바탕(풍파쇠)은 15.3×11㎝로 좌우에 지름 3.5㎝의 卍자문을 원형으로 투각하였다. 쇠를 걸기 위한 배목이 하나 남아있고 뚜껑 쪽의 앞바탕과 낙목, 자물쇠는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다.

내부는 투구와 갑옷을 구분하여 수납할 수 있도록 구획되었으며, 정수리 장식은 별도의 소형 장식함에 넣어 함께 보관하도록 설계되었다. 뚜껑 부분에는 투구를 보관할 수 있도록 미닫이 박판(薄板)을 설치하였는데 두짝 중 한짝은 소실된 상태이다(그림 36).

그림 36. 투구를 보관할 수 있는 갑주함 뚜껑의 안쪽 부분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갑주함은 내부에 주칠을 하고, 투구를 수납할 수 있는 돌출된 뚜껑에는 한 쌍의 박판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주 닿는 부분에는 두석 장식을 더하였다. 이에 비해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함은 구조와 장식이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기능성과 장식성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외부 구조는 뒷면에 경첩을 달았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현재 경첩은 모두 없어지고 못을 박았던 흔적만 남아 있다. 여닫기 편리하게 하고, 앞면에는 자물쇠와 배목·낙목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현재 넉목은 없어진 상태이다. 좌우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바닥에는 동발을 설치하여 지면에서 띄워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재질과 기법

갑주함은 오동나무로 백골을 짠 뒤, 표면에 베를 바르고 골회를 친 다음 흑칠을 입혔다. 내부는 쪽빛 한지를 배접하여 마무리하였다. 목재 구조는 맞댐 및 반턱맞춤 기법으로 짜였으며, 모서리 부분은 두정못과 감잡이로 고정하여 틀어짐을 방지하였다.

3. 문양과 장식

금속 장식은 두석제로 제작되었다. 앞바탕과 윗면에는 만자문(卍字文)을 투각하였고, 투구 보관부 옆면에는 높이 9㎝, 길이 8㎝의 여의두 문양을 장식하였다. 앞바탕에는 지름 3.5㎝의 원형 자문이 뚫려 있으며, 측면 손잡이와 모서리 감잡이는 마름모꼴 형태로 제작되었다. 전체 감잡이는 46점이 사용되었으나, 현재 일부가 소실된 상태이다(그림 37).

그림 37. 갑주함의 문양과 장식

4. 공예적 특징

갑주함은 단순한 보관함을 넘어, 투구와 갑옷을 안전하게 분리·수납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 특히 투구의 감투를 고정하기 위한 내측 미닫이 구조와 뚜껑 안쪽의 3단 곡선 구조(입구 지름 30.5㎝ → 중간 24㎝ → 하부 15.5㎝ → 최하부 11.7㎝)는 정밀한 목공 기술을 요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에도 구조가 뒤틀리지 않도록 금속 장식과 목재 이음 방식을 병행하여 견고함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④ 간주함

그림 38. 간주함과 보자기(간주)

그림 39. 뚜껑을 연 상태의 간주함

1. 형태와 구조
갑주함 내부에는 투구의 정수리 장식(간주)을 따로 보관하기 위한 소형 장식함이 함께 전한다. 이 함은 가로 27.3㎝, 세로 8㎝, 높이 8.3㎝의 직육면체이며, 뚜껑은 빼닫이 구조로 제작되어 여닫기 용이하다. 이런 함을 '설합(서랍, 舌盒)'이라고 한다. 겉에 흑칠을 하였으니 '흑칠설합'이다. 영친왕의 규를 담는 함과 유사한 양식이다. 함의 뚜껑 가장자리는 두께 약 1㎝로 견고하게 제작되었으며, 닫았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너비는 약 5.8~6.5㎝이다(그림 38, 39).

2. 재질과 기법
표면에는 검은색 옻칠을 하고 내부에는 붉은 주칠을 입혀 마감하였다. 옆면은 계단식으로 설계되어 뚜껑이 자연스럽게 밀착되도록 하였으며, 홈의 깊이는 약 5㎜, 높이는 8㎜와 4㎜로 두 단계로 꺾이는 정밀한 구조를 보인다.

3. 문양과 장식
간주함은 갑주함처럼 투각문양을 지니지는 않으며, 검은 옻칠 표면과 내부 붉은 주칠의 색채 대비가 장식적이다.

4. 공예적 특징
뚜껑의 살대는 두께 3㎜로 매우 얇지만 손상 없이 보존되어 있어 정교한 목공 기술을 보여준다. 또한 뚜껑을 닫으면 내부에서 간주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는 소형 기물에 세심한 기능성을 부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⑤ 보자기

그림 40. 시접 정리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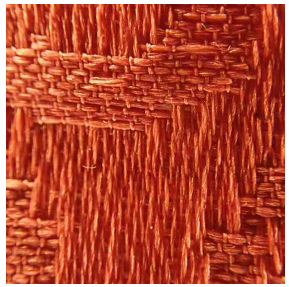


그림 41. 팔사단 조직

그림 42. 보자기 문양(쌍룡문)

1. 형태와 구조
36×37㎝ 크기의 홑보자기(그림 38)는 정수리 장식 간주를 싸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가장자리는 접어 마감하였으며(그림 40), 대각선 모서리에는 너비 2.5㎝, 길이 35㎝의 끈이 달려 있어 장식을 단단히 묶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재질과 기법
홍색 팔사단(八絲緞, 그림 41)으로 제작되었으며, 수자직 바탕에 위수자직으로 문양을 직조하였다. 직물의 두께는 평균 0.194㎜로 얇다. 경사는 0.225~0.251㎜, 위사는 0.266~0.290㎜ 두께의 무연사(無撚絲)를 사용하였다. 밀도는 경사 약 30올/㎝, 위사 약 40올/㎝로, 위사가 더 굵은 편이다.

3. 문양과 장식
보자기에는 원형 안에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향해 배열된 19.8×18.8㎝ 크기의 쌍룡문(圓龍紋, 大楪紋, 그림 41)이 직조되어 있으며, 여백에는 구름 무늬가 배치되었다. 이 문양은 18세기 전기 밀창군 이직(李樴, 1677~1746) 묘 출토 이불에서 처음 확인되며, 이후 20세기 전기까지 사용되었다. 본래 왕실에서 내린 상사단(賞賜緞)의 일종으로 권위를 상징하였으나, 말기에는 왕실과 무관한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보급되었다.

4. 공예적 특징
보자기는 얇고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쌍룡문 직조는 당시 고급 견직물 제작 기술의 수준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ㅇ 지정사례

1. 정지장군 갑옷(광주역사민속박물관, 보물)
이 유물은 보물로 지정된 고려 말 제작 경번갑(鏡幡甲)으로, 현존하는 유일한 고려시대 철제 고리식 갑옷이다. 철판과 고리를 엮어 만든 구조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당시 금속 공예 기술과 군사 장비 체계를 복원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실재 인물인 정지(鄭地, 1347~1391) 장군이 착용하였던 유물로, 개인의 무공과 고려 말 군사사를 함께 입증하는 귀중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2. 동래영 갑주(부산 동래구 충렬사,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유산)
이 유물은 조선 후기 지방 군영에서 사용된 의례용 갑옷으로, 충렬사 송공단(宋公壇) 제향 시 제복으로 착용되던 것으로 전한다. 실제 전투 장비라기보다는 군사 집단의 위엄과 상징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하였으며, 조선 후기 군영 문화가 군사적 실효보다는 의례적 형식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동래영 갑주는 지역 군영 의례와 무관 복식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제작 시기는 18세기로 알려져 있으나, 19세기 유물로 추정된다.

3. 다대첨사영 갑주(부산 동래구 충렬사,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유산)
두정(頭頂) 갑옷은 조선 후기 발달한 방호복의 한 유형으로, 현재 몇 벌의 유물이 전한다. 이 갑옷과 투구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싸우다 순국한 윤흥신 공을 비롯한 민・관・군의 제향에 착용된 제복으로 전하나, 갑옷 내부에 철편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실전용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유물은 순국선열의 충절을 기리는 기념적 의미와 더불어 조선 후기 갑옷과 투구의 실체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우리나라 무관복(武官服) 연구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ㅇ 참고문헌

국가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국립고궁박물관(2010), 『영친왕 일가 복식』.
국립고궁박물관(2020), 『군사의례』.
국립문화재연구소(2006), 『우리나라전통무늬1 직물』.
국립문화재연구소(2013),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온양민속박물관(2005), 『우리 민속 오백년의 모습』.
온양민속박물관(2024),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조사 용역』.
이은주(2019),「외규장각 의궤 책의 문양을 통한 운보문 편년 설정 방법」, 『文化財』 52(4).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투구・갑옷)와 갑주함 등의 지정 가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1. 완전성(完整性)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는 갑옷과 투구뿐 아니라 갑주함, 간주함, 보자기까지 남아 있다. 오동잎과 두정 등 일부 장식이 소실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구조와 주요 문양, 금속 장식, 모피 선단 등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 높은 완전성을 보여준다.

2. 희소성(稀少性)
이 갑주는 국내에 현존하는 갑주 가운데 사조룡(四爪龍) 문양을 주문양으로 사용한 유일한 사례이다. 또한 투구의 감투에 은입사(銀入絲) 기법을 적용한 예 역시 이 유물이 유일하여, 희소성이 매우 높다.

3. 역사성(歷史性)
이 갑주는 19세기 후기에 왕실 의장용 또는 전시용으로 제작・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왕실 복식문화와 공예 수준, 군례 장엄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 유물로 평가된다.

4. 예술성(藝術性)
이 갑주는 두석, 투조, 파란, 은입사 등 최고 수준의 공예 기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또한 용, 호랑이, 봉황, 여의주, 일월 등 상징 문양을 정교하게 배치하여 뛰어난 조형성을 보여준다.

5. 학술성(學術性)
이 유물은 뉴어크, 빈, 함부르크 등 국내외 전승 갑주와의 비교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국내 유일의 완형 갑주 일습이라는 점을 기반으로 왕실 무구 특별전의 기획, 디지털 아카이빙, 국제 비교 연구 협력에도 적용 가능하다. 아울러 직물・금속・모피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복식과 공예 기술을 복원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 일습은 갑옷과 투구뿐 아니라 갑주함, 간주함, 보자기까지 완전하게 전승된 국내 유일의 사례로서 높은 완전성을 지닌다. 사조룡 문양과 은입사 감투 등의 양식은 희소성을 보여주며, 19세기 후반 왕실 의장용 또는 전시용으로 제작・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역사적 가치를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용・호랑이・봉황・여의주・일월을 정교하게 배치한 조형성, 두석・투조・파란・은입사 등 최고 수준의 공예 기법은 예술적 수준을 잘 보여준다. 또한 국내외 전승 갑주와의 비교 연구, 직물・금속・모피 분석을 통한 기술 복원, 특별전 및 디지털 아카이빙 등 다양한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갑주 일습은 조선 후기 왕실 복식문화와 군례 장엄의 실체를 증명하는 동시에, 역사・공예적・학술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이므로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보존할 필요가 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 24.>
(앞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5.7.11.	대상문화유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조사자		성 명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유산 종류	국가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 명칭	※ 지정 명칭 기재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생략)			
	연혁・유래 및 특징	- 세부 내용 <붙임1>에 기재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부 내용 <붙임2>에 기재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 (생략)			
		<보호물> (생략)			
		<보호구역> (생략)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생략)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붙임1>에 포함하여 기술			
종합의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9 월 22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붙임1>

연혁·유래 및 특징

ㅇ 지정현황 : 충청남도 시도민속문화유산 (2010.7.30. 지정)
ㅇ 명　　칭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ㅇ 소유자(관리자) : (재)구정문화재단
ㅇ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123 온양민속박물관
ㅇ 수　　량 : 4건 5점
ㅇ 규격·재질 및 형식 등 : [상세 자료] 참조
ㅇ 조성연대 : 19세기 말

ㅇ 현　상

갑주(甲胄)는 갑옷과 투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조선시대 갑옷과 투구에 관한 기록은 『세종실록 오례의』(1450년 전후), 『국조오례의서례』(1474년), 『춘관통고』(1788), 『만기요람』(1808년) 등에 남아 있다.

현전하는 갑주 유물을 보면, 『국조오례의서례』(1474년)에 규정된 갑주의 형태와 제작 방법을 따르면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계승된 갑주도 있고, 부분적으로 변화되어 계승된 갑주도 있으며, 아예 사라진 갑주도 있다. 먼저, 갑옷의 경우, 찰갑형 갑옷과 두정갑형 갑옷이 남아 있다. 찰갑형 갑옷은 겉감이 갑찰[갑옷미늘]로 연결된 형태로, 철(鐵)·동물의 가죽[皮]·종이[紙] 등으로 만들었다. 두정갑형 갑옷은 겉감이 직물이고 안쪽에 갑찰이 있거나 또는 없는 상태에서 두정이 시정된 형태로, 면포(綿布)·비단[段子]·모직[氈] 등으로 만들었다. 다음으로, 투구의 경우, 첨주와 간주형 투구가 남아 있다. 첨주는 머리가 들어가는 투구감투의 하단 둘레 전체에 첨(簷), 즉 차양이 달려 있는 형태이다. 간주형 투구는 투구감투의 하단 앞쪽에만 차양[簷]이 달려 있는 형태로, 위쪽에는 간주를 세우고 정수리 장식을 꽂았고 아래쪽에는 드림을 달았다. 투구감투의 재료는 철(鐵), 가죽[皮], 종이[紙], 나무[木] 등으로 다양하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溫陽民俗博物館 所藏 甲胄와 甲胄函)은 2010년 7월 30일 충청남도 시도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25년 7월 11일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유물은 4건 5점으로, 갑옷 1점, 투구 1점, 갑주함 2점(갑주함, 투구 장식함), 보자기 1점 등인데, 상태가 모두 양호한 편이다. 이 중 갑옷은 전[氈]으로 만든 두정갑으로, 겉감과 안감 사이에 갑찰을 넣지

않고 겉에서 두정을 박은 식양갑(飾樣甲)이다. 투구는 정수리 장식이 있는 간주형 투구로, 당대의 뛰어난 조형성과 세련된 금속공예 기술이 돋보인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 일괄 유물은 영조대 명신이던 이익필의 집안에서 가전되던 것이다. 1971년 이병도 박사는 '… 이 金甲이 어느 帝王의 着用하던 것인가는 仔細히 알 수 없으나, 그 물건이 比較的 성하고 깨끗한 것으로 보아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 二百年 內外의 것일 것 같다. 즉 英祖나 正祖의 金甲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라고 감정하였고<그림 1>, 그 감성서가 온양민속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온양민속박물관 신탁근 고문(전 온양민속박물관 관장)의 진술에 따르면, 1975년 이익필의 후손이던 이일로씨와 친분이 있던 ㈜계몽사의 김원대 회장이 온양민속박물관을 개관할 당시 본 유물을 구입하여 소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구입 당시 정조가 착용했다고 구전되었다.

鑑定
이 甲胄는 우리나라의 옛날 帝王이 講武閱兵 혹은 田獵時에 입던 이른바 「金甲」임이 틀림없다고 생각된다. 近朝鮮 初期의 成宗大王과 같은 분도 箭串(살고지) 講武時에 친히 金甲을 입으시고 閱兵을 행하신 일이 있거니와, 그 때는 특히 大元帥의 資格으로 行幸하였던 것이다. 이 金甲이 어느 帝王의 着用하던 것인가는 仔細히 알 수 없으나, 그 물건이 比較的 성하고 깨끗한 것으로 보아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고 二百年 內外의 것일 것 같다. 즉 英祖나 正祖의 金甲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一九七一年 六月 二十九日
李丙燾 (印)

그림 43. 이병도 박사의 감정서 내용(온양민속박물관 제공)

[상세 자료] 조사대상 유물 내역

순번	유물사진	유물정보		규격 및 비고 (단위: ㎝)
1		명칭	갑옷	-길이: 103 -화장: 62.3 -품: 64 -옆트임 길이: 62 -뒤트임 길이: 54 -모피 털 너비: 5~6 -허리끈: 12×75~76
		구성	겹	
		소재	-겉감: 홍색 전(氈) -안감: 남색 운보문단(雲寶紋緞) -심지: 흰색 면직물 -선단: 모피 털	
		여밈방법	구슬형 밀화 단추, 단추고리	
		허리끈	-남색 운보문단(雲寶紋緞)	
		금속장식	-전체: 두정 -어깨: 용 모양 견철 -목선: 오동잎 모양 초엽(草葉) -앞길: 사조룡 1쌍, 여의주 2개 -뒷길: 호랑이 1쌍, 여의주 2개, 금판 2개, 금환 2개	
		수량	1건 1점	
2		명칭	투구	-정수리장식 높이: 23 -감투 높이: 13 -이마가리개 높이: 6.6 -감투 지름: 22, 21 -말총 길이: 60 -투구감투 끈: 4.8×71.5 -드림 끈: 5×46
		구조	투구감투, 정수리 장식, 드림	
		소재	-투구감투: 철 -드림(겉감): 홍색 전 -드림(안감): 남색 운보문단 -선단: 모피 털 -투구감투 끈: 흑색 무문단 -드림 끈: 홍색 운보문단 -상모: 말총	
		금속장식	-감투(앞): 사조룡, 여의주, 구름 -감투(뒤): 봉황, 여의주, 구름 -감투(옆): 공작 -근철, 개철, 정수리 장식, 대선, 대철, 이마가리개 등	
		수량	1건 1점	
3		명칭	갑주함	-상단(원통형) 지름: 30.5/24/11/7 높이: 36.2 -하단(직육면체) 가로: 74.2 세로: 44 높이: 18.4
		용도	투구와 갑옷 보관	
		소재	오동나무, 흑칠(黑漆)	
		금속장식	앞바탕, 손잡이, 감잡이	
		수량	1건 1점	
4		명칭	투구 장식함	-크기 가로: 27.3 세로: 8 높이: 8.3
		용도	투구 정수리 장식 보관	
		소재	오동나무, 흑칠(黑漆)	
		수량	1건 1점	
5		명칭	보자기	-크기: 36×37 -끈: 2.5×35
		용도	투구 정수리 장식 싸개	
		소재	- 홍색 기(綺) - 원형 쌍룡문 격자 배열	
		수량	1건 1점	

ㅇ 내용 및 특징

① 갑옷 1점

- 상태: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옷은 금속장식 중 두정 2개와 초엽 2개가 소실되고 금속 장식을 고정한 못이나 장식의 뾰족한 일부가 조금 부러진 것을 제외하면 온전한 편임. 다만, 안감이 전체적으로 열화되어 약해져 있고 안감 고대부분 일부가 헤져 있으며, 단추 고리의 끈목[多繪] 검정색 실이 헤져 있음.
- 형태: 깃 · 겉섶 · 안섶 · 무가 없는 반소매 형태의 포. 옆트임과 뒤트임이 있음. 목선 · 좌우 앞중심선 · 수구 · 옆트임 · 뒤트임 등 갑옷의 가장자리에 모피 털이 둘러져 있음.
- 소재: 겉감은 홍색 전(氈), 안감과 허리끈은 남색 운보문단(寶寶紋緞), 심지는 흰색 면직물, 선단은 모피 털임. 이 중 운보문단(雲寶紋緞)은 각각 구름 · 보매 · 무늬 · 비단을 뜻하며, 무늬는 운문의 사분면 사이로 서보(書寶), 서각(犀角, 쌍서각), 방승(쌍방승), 전보(錢寶, 쌍전보), 서각(犀角, 쌍서각), 연환의 순서로 6개의 보문이 배치되어 있음.
- 여밈방법: 착용시 좌측에 구슬형 밀화단추 3개(지름 2.19㎝), 우측에 단추고리가 달려 있음. 단추고리는 원래 검정색 끈목이었으나 헤져서 홍색 심사만 남아 있음.
- 허리끈: 양쪽 옆선에서 약 4.3㎝ 들어온 곳에 남색 운보문단 허리끈이 갑옷에 바느질되어 있음. 갑옷의 안감과 동일한 옷감임.
- 금속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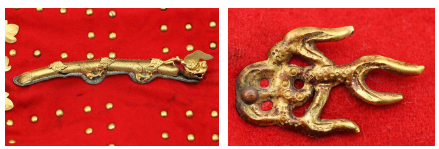
- 두정: 갑옷의 앞길과 뒷길에 두정(지름 1㎝)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음. 앞길의 두정은 좌측 115개, 우측 117개로, 좌측 2개의 두정이 소실되었음. 뒷길의 두정은 뒷트임 선을 기준으로 좌우에 각각 138개로 전체 276개임.
- 견철: 좌우 어깨에 용 모양의 견철(길이 27㎝)이 달려 있음. 용은 사조룡으로 네 마디로 나뉘어져 있음. 귀와 혀에는 밀납에 주칠(朱漆)을 하였고 아래쪽 턱관절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아래턱이 벌어질 때 혀가 움직여 생동감을 더함. 용의 앞쪽에 황동으로 만든 여의주(3.2×1.8㎝)가 있음.
- 초엽: 목선에 오동잎 모양의 초엽(草葉)이 있음. 초엽은 앞길 목선에 10개, 뒷길 목선에 6개 등 총 16개가 달린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앞길 좌측 초엽 1개와 뒷길 좌측 초엽 1개가 소실되어 14개가 남아 있음.
- 사조룡과 여의주: 갑옷 앞길 아래쪽에 사조룡 1쌍(7.3×11㎝)이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고, 용 위에 여의주(2.8×3㎝)가 있음.
- 호랑이와 여의주: 갑옷 뒷길 아래쪽에 호랑이 1쌍(10×9㎝)이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

되어 있고, 호랑이 위에 여의주(2.8×2.8㎝)가 있음.

- 금판과 금환: 갑옷 뒷길 등쪽에 해를 상징하는 금판 2개(지름 4.7㎝)가 배치되어 있고, 허리쪽에 달을 상징하는 금환 2개(지름 3.5㎝)가 배치되어 있음.

갑옷 앞과 뒤 / 갑옷 안

밀화단추와 단추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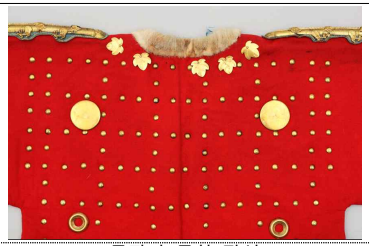


용모양 견철과 여의주

초엽 장식

사조룡과 여의주 장식

호랑이와 여의주 장식



금판과 금환 장식

그림 44.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옷

② 투구 1점

- 상태: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투구는 투구감투(이하 '감투'로 약칭함), 근철, 개철, 정수리 장식, 대선, 대철, 차양, 이마가리개, 드림, 투구감투 끈, 드림 끈까지 모두 갖추고 있음. 현존하는 투구 중 거의 완형을 갖추고 있는 유일한 투구이고,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편임. 다만, 정수리 장식이 약간 휘어져 있고, 정수리 장식에 있는 작은 화염 5개 중 1개와 드림 후면에 있는 여의두문 1개가 소실되었음.
- 형태: 투구는 투구감투, 정수리 장식, 드림 세 부분으로 구성됨.
- 소재
  - 감투: 철제
  - 감투 안: 홍색 녹피(鹿皮)가 씌워져 있음.
  - 드림: 겉감은 홍색 전(氈), 안감은 남색 운보문단임. 가장자리에 모피 털이 둘러져 있음. 갑옷의 소재와 동일함.
  - 감투 끈: 검정색 무문단. 너비 4.8㎝, 길이 71.5㎝임.
  - 드림 끈: 홍색 운보문단. 너비 5㎝, 길이 46㎝임.
- 감투의 구성요소 및 장식
  - 감투는 감투본체 · 근철 · 대선 · 대철 · 차양 · 이마가리개로 구성되어 있고, 표면에 용 · 봉황 · 여의주 · 구름 · 공작 등이 장식되어 있음.
  - 감투 본체: 철제로 형태를 만들고 바탕에 모란당초문을 은입사한 다음 표면 전체를 옻칠하여 구웠음. 금속장식에 가려진 부분의 무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음.
  - 근철: 감투의 전후좌우 네 면에 근철이 대어져 있음. 근철에 회문(回文)과 만자문(卍字文) 등이 장식되어 있음.
  - 대선: 감투 아래쪽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무리하면서 차양을 달수 있도록 앞쪽에 대선(帶線)을 댐. 대선의 중앙에 여의주가 있고, 여의주의 좌우에 봉황 1쌍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음.
  - 대철: 감투 아래쪽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무리하면서 드림을 달수 있도록 좌우에 대철(帶鐵)을 댐. 좌우의 대철에 각각 당초문처럼 보이는 초룡문(草龍文) 2개가 배치되어 있는데 서로 꼬리를 맞대고 있음.
  - 차양: 차양의 중앙에 여의주가 있고, 여의주 좌우에 초룡문(草龍文) 1쌍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음.
  - 이마가리개: M자 형태의 이마가리개 중앙에 여의주처럼 둥근 옥판(지름 5㎝, 봉황과 이화꽃 투조)이 있고, 옥판의 좌우에 초룡문(草龍文) 1쌍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음.
  - 검정색 끈목: 감투 안쪽에 투구 끈의 구영자를 끼울 수 있도록 갑옷의 단추고리와 동일한 검정색 끈목으로 만든 고리가 있음.
  - 금속장식: 감투 표면 위에 용 · 봉황 · 여의주 · 구름 · 공작 등의 금속장식이 못으로

고정되어 있음. 앞면에는 중앙의 근철을 중심으로 좌우에 사조룡 · 여의주 · 구름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고, 뒷면에는 중앙의 근철을 중심으로 좌우에 봉황 · 여의주 · 구름이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음. 좌우 측면 근철의 만자문 부분에는 날개를 활짝 편 공작이 장식되어 있음. 사조룡은 갑옷 앞길 아래쪽에 있는 사조룡과 동일함.

- 정수리 장식의 구성요소 및 장식

- 정수리 장식은 아래에서부터 개철, 간주, 상모, 3단 보주, 화염, 복발, 보주, 화염, 보주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철: 감투 위쪽이 벌어지지 않게 마무리하고 간주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작은 복발형태의 개철(蓋鐵)을 댐. 3단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빗살문 · 파도문 · 연주문 · 국화문 등이 음각되어 있고, 여의주 · 초룡 1쌍 · 봉황 1쌍이 투각되어 있음. 개철의 윗면 중앙에 하단 간주가 끼워져 있음.
- 하단 간주: 개철에 붙어 있는 간주로, 길이 6.7㎝임.
- 상단 간주: 상모 위 보주장식에 붙어 있는 간주로, 길이 9.8㎝임. 투구를 갑주함에 넣어 보관할 때는 상단 간주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작은 상자에 넣어 보관함.
- 상모장식: 국화 받침과 원형 받침 사이에 붉은색 말총을 끼운 다음 두정을 박아 고정함.
- 3단 보주장식: 상 · 중 · 하 3단으로 구성됨. 상단과 하단은 구리이고, 중단은 도금임. 하단의 보주는 여섯 잎의 꽃봉우리(위쪽, 높이 1.3㎝)와 2중 국화꽃 형태의 꽃받침(아래쪽, 지름 3.3㎝)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단의 보주(높이 2.3㎝)는 원환(圓環) 4개가 맞물리며 투각되어 있는데 중앙에 태극(太極) 무늬가 있음. 상단의 보주(높이 1.5㎝)는 여섯 면으로 골이진 호박과 같은 형태임.
- 화염장식: 화염(길이 5㎝)이 5개의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가지마다 6개의 작은 불꽃이 붙어 있음.
- 복발장식: 최상단의 장식물을 받치고 있음.
- 보주장식: 전보문이 투각되어 있음.
- 화염장식: 화염이 5개의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가지마다 3개의 작은 불꽃이 붙어 있음
- 보주장식: 보주(높이 1㎝)는 끝이 뾰족하고 6면을 가진 형태임.

- 드림의 구성요소 및 장식

- 드림은 좌우 옆드림 2장과 뒷드림 1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옆드림을 먼저 달고 뒷드림을 다는 순서임. 드림의 길이는 모두 26㎝임.
- 두정: 갑옷과 같은 두정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나, 간격은 일정하지 않음.
- 광두정 장식: 광두정(지름 3.2㎝)이 뒷드림에 3개, 옆드림에 각각 1개씩 장식되어 있음.
- 여의두문 장식: 드림의 위쪽에 여의두문(2.8×2.6㎝)이 일정한 간격으로 장식되어 있음. 뒷드림에 4개, 옆드림에 각각 3개씩 장식되어 있었는데, 뒷드림쪽 여의두문 장식 1개가 소실되었음.

투구 앞과 뒤

투구 안, 감투 끈, 구영자

사조룡・여의주・구름 장식, 근철, 대선

봉황・여의주・구름 장식, 근철, 대철

공작 장식, 근철, 대철

정수리 장식

차양

이마가리개

그림 45.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투구

③ 갑주함 1점

- 상태: 겉면의 옻칠이 벗겨진 부분이 많음. 감잡이 3개, 뚜껑 부분의 앞바탕, 배목 1개, 낙목, 자물쇠, 열쇠, 갑주함 뒷면의 경첩 3개, 미닫이 받침판 1짝이 소실되었음.
- 갑주함은 상단의 원통형 부분과 하단의 직육면체 부분으로 구성됨. 상단의 투구를 보관하는 부분과 하단의 갑옷을 보관하는 부분이 미닫이(39.5×18㎝) 형태의 주칠(朱漆)한 받침판으로 구분되어 있음. 받침판은 2짝으로 추정되는데 1짝은 소실되었음. 바닥의 네 모서리에 동발이 붙어 있음.
- 소재: 오동나무로 백골을 짠 후 표면에 베를 바르고 골회를 친 다음 흑칠(黑漆) 함. 안쪽에 쪽색 한지로 배접하였음.
- 크기

- 상단 원통형 부분: 입구쪽부터의 지름 30.5㎝→ 24㎝→ 11㎝→ 7㎝, 높이 36.2㎝..
- 하단 직육면체 부분: 가로 74.2㎝, 세로 44㎝, 높이 18.4㎝..
- 두껑: 두께 1㎝, 깊이 3.5㎝..

- 금속 장식

- 앞바탕: 갑옷함의 앞면에 앞바탕(15.3×11㎝)이 있음. 앞바탕의 좌우에 卍자문(지름 3.5㎝)을 원형으로 투각함. 뚜껑 쪽의 앞바탕과 낙목, 자물쇠는 소실되었음.
- 손잡이: 갑옷함의 좌우 측면 중앙에 두석제 손잡이(폭 11.5㎝)가 있음.
- 감잡이: 갑주함의 이음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마름모꼴 감잡이(6×2.8㎝)를 부착함. 각 모서리에 40개, 상단과 하단이 만나는 부분에 6개 등 총 46개의 감잡이가 사용되었는데 현재 3개는 소실되었음.

④ 투구 장식함과 보자기 각 1점

- 투구 장식함

- 투구의 정수리 장식을 감투와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기 위하여 만든 직육면체의 소형 장식함으로, 갑주함에 넣는 구조임. 뚜껑은 빼닫이 형태로 뚜껑을 빼거나 닫을 수 있음. 장식함의 안쪽 면에 주칠이 되어 있음.
- 오동나무로 백골을 짠 후 표면에 베를 바르고 골회를 친 다음 흑칠(黑漆) 함.
- 크기: 가로 27.3㎝, 세로 8㎝, 높이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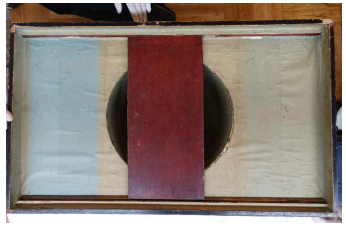
- 보자기

- 정사각형(36×37㎝)에 가까운 형태의 홑 보자기.
- 가장자리 네 면을 접어서 공그르기(0.8~1.0㎝ 간격) 함. 보자기의 대각선 모서리에 끈(2.5×35㎝) 2개를 달아 정수리 장식을 싸서 묶을 수 있도록 함.
- 소재 및 문양: 홍색 기(綺) 직물. 둥근 용무늬(19.8×18.8㎝)가 격자형으로 배열되어 있음. 원 안에 승용과 강용이 중심의 여의주를 향해 달려가는 형상으로 둥글게 배열되어 있고

여백에 연꽃 넝쿨무늬가 있음. 보자기에 보이는 쌍룡문은 19세기 무늬의 특징을 보여줌.

갑옷함의 앞면과 측면 / 밑면의 동발

갑옷함을 연 상태



갑옷함 내부의 미닫이 받침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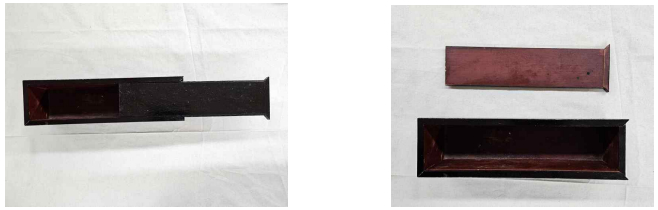
갑옷함 상단의 만자문과 여의두 무늬 장식

앞바탕

손잡이

감잡이

그림 46.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함



투구 장식함

보자기와 정수리 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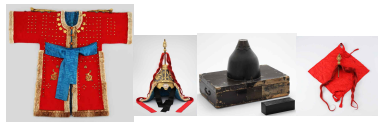
보자기 끈

그림 47.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투구 장식함과 보자기

ㅇ 지정사례

- 보물: 1건
- 류성룡의 갑옷 1점과 투구 1점
- 국가민속자료: 2건
- 정충신의 갑옷 1점
- 정공청의 갑옷 1점과 투구 1점
- 지역문화유산: 4건
-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유산: 동래영 갑옷 7점과 투구 2점
-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유산: 다대첨사영 갑옷 1점과 투구 1점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투구 1점, 견철 2점
- 충청남도 민속문화유산: 갑옷 1점, 투구 1점, 갑주함 1점, 투구 장식함 1점, 보자기 1점

표 1. 기지정 갑주 유물 목록

순번	유물명	지정번호	사진	소장처
1	류성룡 갑주	보물 제460호		종손가
2	정충신 장군 유품	국가민속자료 제36호		개인 (정은영)
3	정공청 유품	국가민속자료 제38호		울산박물관
4	동래영 갑주 (東萊營 甲冑)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유산		충렬사
5	다대첨사영 갑주 (多大僉使營 甲冑)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유산		충렬사
6	원수명 가죽투구와 갑옷 (元帥名 皮冑와 甲肩龍)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7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溫陽民俗博物館 所藏 甲冑와 甲冑函)	충청남도 민속문화유산		온양민속 박물관

ㅇ 참고문헌

국립문화재연구소, 『독일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2013.

김정자(1998), 『한국군복의 변천사 연구』, 민속원.

류한익(1985), 「朝鮮時代의 甲冑에 대한 金屬學的 考察」, 대한금속재료학회지 23(2).

문광희(2004), 「조선후기 갑주 및 구군복에 관한 연구」, 韓服文化 7(1).

문화재관리국(1987), 『韓國의 甲冑』.

문화재청(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② 복식 · 자수편』.

민승기(2004), 『조선의 무기와 갑옷』, 가람기획.

박가영(2003), 「조선시대의 갑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가영(2008), 「조선시대의 갑주유물의 감정을 위한 현황파악과 시대 구분」, 服飾 58(5).

박가영 · 이은주(2009), 「서애 류성룡 갑옷의 형태 복원을 위한 기초조사」, 服飾 59(5).

이강칠(1981), 「韓國의 甲冑」, 服飾 5.

이은주(2019), 「외규장각 의궤 책의 문양을 통한 운보문 편년 설정 방법」, 文化財 52(4).

이주영(2011), 「임진왜란기(1592～1598) 상급 수군 투구[冑]의 유형별 특성과 일러스트화」, 服飾 61(3).

이주영(2013), 「임진왜란기(1592～1598) 상급 수군 갑옷[甲]의 유형별 특성과 일러스트화」, 服飾 63(7).

장경희 외 9명(2024),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을 위한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 일습은 갑옷 1점, 투구 1점, 갑주함 2점, 보자기 1점 등 4건 5점이다. 갑주 일습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갑옷 양식의 연속성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 일습은 착용자와 착용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병도 박사의 감정 내용에 따라 오랫동안 ‘영조나 정조 임금의 금갑’으로 알려져 왔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옷과 보자기에 사용된 운보문과 둥근 쌍룡문의 출현 시기를 토대로 제작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다.
- 갑옷의 안감으로 연환문이 있는 운보문이 사용되었는데, 연환문이 있는 운보문은 19세기 중반에 제직된 직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정수리 장식을 싸는 보자기에 둥근 쌍룡문(19.8×18.8㎝)이 사용되었는데, 둥근 쌍룡문은 19세기에 들어 사용된 문양으로 이해되고 있다. 연환문이 있는 운보문과 둥근 쌍룡문의 사용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의 제작 시기는 19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된다. 갑주의 착용자는 사조룡 장식에 근거해서 왕세자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옷은 조선 전기 『국조오례의서례』에 규정된 두정갑 계열의 갑옷을 계승하고 있는 전갑(氈甲)이다. 직물로 갑옷을 만들고 두정을 박는 양식이 19세기까지 이어져 왔고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구성품목의 완전성

- 갑주 일습에는 핵심 구성품목인 갑옷과 투구는 물론이고, 갑옷과 투구를 보관하는 보관함과 별도로 분리되는 투구 정수리 장식을 싸서 보관하는 보자기와 투구 장식함까지 포함된다.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옷은 겉감과 안감 사이에 갑찰을 넣지 않고 겉에서 두정을 장식한 전갑(氈甲)이다. 현전하는 전갑 유물은 총 22건인데, 이 중 6건만 국내에 소장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국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22건 중 투구가 함께 남아있는 경우는 21건이고, 21건 중 갑주함이 남아있는 경우는 6건이며, 6건 중 갑옷 · 투구 · 갑주함 · 투구 장식함 · 보자기 까지 모두 남아있는 경우는 온양민속박물관 1건, 라이프치히그라시민속박물관 2건, 뉴어크박물관 1건 등 총 4건이다. 특히, 온양민속

박물관 소장 갑주와 뉴어크박물관 소장 갑주는 갑옷과 투구의 일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구성요소가 거의 동일하다.

- 국내 소장 유물 중 갑옷과 투구는 물론이고 갑주함, 정수리 장식을 담는 투구 장식함, 정수리 장식을 싸는 보자기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사례는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유물이 유일하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 일습은 전술한 <표 1>에서 보듯이 기지정된 갑주 관련 보물, 국가민속자료, 지역문화유산에서도 볼 수 없는, 구성품목 일습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학술적·사료적 가치는 물론 희소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형태 및 외관의 온전성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 일습은 갑옷, 투구, 갑주함, 투구 장식함, 보자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갑옷·투구·갑주함 일부에서 손상이 확인되었다. 갑옷과 투구의 손상은 미미한 수준인데, 갑옷의 경우, 안감쪽 고대 부분 일부가 헤지고, 안감이 전체적으로 열화되어 있으며, 두정 2개와 초엽 2개가 소실되었다. 투구의 경우, 투구 정수리 장식이 약간 휘어져 있고, 투구 드림에 여의두문 1개가 소실되었다. 갑주함은 다소 많이 손상되어 있는데, 표면의 옻칠이 벗겨져 있고, 감잡이·뚜껑의 앞바탕·자물쇠·열쇠·경첩 등 부속품 일부가 소실되었다.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유물은 일부 손상된 부분도 있으나, 핵심 구성품목인 갑옷과 투구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갑옷에 사용된 홍색 전과 남색 운보문단의 원래 색상과 무늬가 고스란히 남아 있고, 갑옷과 투구를 장식하거나 구성하는 두정·용·봉황·여의주·구름·공작·견철·금판·금환·근철·대선·대철·차양·이마가리개 등의 금속장식의 광채가 변색되지 않고 생동감 있게 빛나고 있다. 또한 부속품인 밀화단추·단추고리·구영자·허리끈·감투 끈·드림 끈 등도 거의 완형으로 남아 있고, 갑옷 가장자리에 두른 모피 털 역시 치밀한 조직감과 풍성한 볼륨감을 유지하고 있다.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 일습은 일부 손상된 부분도 있으나 형태 및 외관, 직물, 금속장식, 부속품 등의 상태가 매우 온전하다는 점에서 학술적·사료적 가치는 물론 희소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④ 제작기법의 독보적 예술성

- 현전하는 국내 유물 중 갑옷과 투구에 사조룡이 장식된 사례는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가 유일하다.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갑옷 역시 전갑이지만 갑옷만 남아있고 사조룡이 아니라 오조룡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투구에는 다른 투구에서 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법이 사용되었다.

- 첫째, 현전하는 국내 투구 중 감투의 철제 바탕 위에 은입사가 장식된 사례는 온양민속박물관 투구가 유일하다.
- 둘째, 현전하는 국내 투구 중 이마가리개 중앙의 원안에 봉황이 투조되어 있거나 정수리 장식 최상단에 황동 보주가 장식된 사례 역시 온양민속박물관 투구가 유일하다. 이러한 구성은 오조룡 또는 삼조룡이 장식된 투구에서는 볼 수 없다. 오조룡이 장식된 투구는 대개 이마가리개 중앙의 원안에 용이나 봉황이 투조되어 있고 정수리 장식 최상단에 옥이 장식되어 있다. 또 삼조룡이 장식된 투구는 대개 이마가리개 중앙의 원 안에 원수(元帥)나 덕(德) 자와 같이 글자나 길상문이 부조되어 있고 최상단에 삼지창이 장식되어 있다.
- 셋째, 현전하는 국내 투구 중 투구 정수리 장식의 전보구슬과 감투 측면의 공작장식이 모두 황동으로 제작된 사례 역시 온양민속박물관 투구가 유일하다. 투구 정수리 장식의 전보구슬과 감투 측면의 공작장식은 대부분 은에 칠보로 장식하여 만들었다.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는 단순한 군복이 아니라 장인의 숙련된 공예기술과 정성, 미적 가치가 집약된 정교한 예술작품이다. 특히, 갑옷과 투구에 사조룡이 장식된 점, 투구 정수리 장식 최상단에 황동 보주가 장식된 점, 정수리 장식의 전보구슬과 감투 측면의 공작장식이 황동으로 제작된 점 등은 현전하는 국내 갑옷과 투구에서는 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법이라는 점에서 조형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보관상태의 우수성

-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 일습의 보관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다. 현재 항온항습 시설을 갖춘 온양민속박물관 수장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 모든 면에서 유사한 뉴어크박물관 소장 갑주보다 금속장식의 변색이 적어 광채가 더 선명하고 모피털도 더 온전하다는 점에서 보관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온양민속박물관 측은 헤진 직물 부분과 남아있는 금속장식 및 부속품이 더 이상 손상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으로,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 일습은 갑옷과 투구, 갑주함 일부에 손상이 있으나, 현전하는 국내 전갑 유물 중 구성품목이 완전하고 형태 및 외관이 온전하며 제작기법이 독보적인 유일한 유물이라는 점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학술적·사료적·예술적·희소적 가치가 인정된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 일습을 국가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 24.>

(앞쪽)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	2025.7.11.	대상문화유산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조사자	성 명		전공 분야	
	소 속		직위(직책)	

주요 지정 사항 검토	문화유산 종류	국가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 명칭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갑주와 갑주함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해당사항 없음)
	연혁·유래 및 특징	- 조선 영조대 명신이었던 이익필(李益弼, 1674~1751) 가문에 전래된 것으로, 1975년 온양민속박물관 개관 당시 계몽사 故김원대 회장이 이익필의 후손 이일로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전함 - 갑옷, 투구, 갑주함, 투구장식함, 보자기로 구성됨 - 갑옷: 홍색 전(氈)으로 만든 두정갑이며 허리끈이 달림. 가장자리에 모피가 둘러져 있고, 양 어깨의 견철(肩鐵), 사조룡 및 호랑이, 여의주 모양 금속 장식 부착됨 - 투구: 감투, 정수리장식, 차양, 이마가리개, 드림, 끈 등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었으며 국내의 다른 투구에 보이지 않는 장식 요소와 제작 기법 다수 확인됨 - 갑주함: 금속 장식이 달린 흑칠함. 상단에 투구를, 하단에 갑옷을 보관하는 구조. - 투구장식함: 투구의 정수리 장식을 별도로 보관하는 용도의 장방형 흑칠함 - 보자기: 투구의 정수리 장식을 감싸 보관하는 용도. 정방형 홑보자기로 쌍룡문이 있는 홍색 직물 사용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갑옷의 안감으로 사용된 운보문단의 문양 양식으로 보아 19세기 중반 이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 갑옷의 역사와 전통을 잘 보여줌 - 국내에 전하는 유물 중 갑옷과 투구 뿐 아니라 갑주함, 투구장식함, 보자기 등 부속품까지 남아 있는 유일한 사례이며, 완전성과 희소성 측면에서 가치가 높음 - 핵심 유물인 갑옷과 투구의 보존상태가 우수하여 고유의 형태와 특징을 잘 보여주며, 부속품들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조선시대 갑옷의 전통과 특징을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숙련된 장인의 뛰어난 제작 기술을 보여주는 정교한 공예품으로서 높은 가치를 지님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문화유산> (해당사항 없음)
		<보호물> (해당사항 없음)
		<보호구역> (해당사항 없음)
보호 관리 사항 검토	문화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생략)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생략)
종합의견		- 갑옷과 투구 뿐 아니라 보관용 함과 보자기가 온전히 남아 있고 제작 수준과 전체적인 보존상태가 모두 우수한 희소한 사례로서, 우리나라 갑주의 역사와 구성법 및 제작법, 특징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음 - 해당 문화유산이 지닌 학술적 가치와 완전성 및 희소성, 높은 완성도와 예술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보존·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국가유산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보 고 사 항

안건번호 민속 2025-10-07

7. 현상변경 등 자체처리 결과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민속문화유산 주변 행위허가 허가신청에 대한 자체처리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 유산명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소 계		3건	허가 1건 조건부 허가 2건
세종 홍판서댁	세종특별 자치시 (OOO)	□ **세종 홍판서댁 주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신청위치: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청연로 111 (지정구역에서 250m 이격, 4구역) ○ 사업내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기존 건축물(2층) 위 공작물 설치 - 설치면적 47.5㎡, 최고높이 10.342m	○ **허가**
경주 양동마을	경북 경주시 (경주시장)	□ **경주 양동마을 내 주변배수로 정비 기간 연장** ○ 신청위치: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976번지(구거) ○ 사업내용 - [1구역] 하천바닥 박석 깔기: A=279.35㎡ - [2구역] 하천석축(거친돌) 해체 후 하천확장(B=6~6.35m) 및 재설치: L=31.08m, H=1.78~1.99m - (당초) `25.6.12.~`25.8.31.→(연장) `25.9.30.~`25.12.31.	○ **조건부 허가**
안동 하회마을	경북 안동시 (안동시장)	□ **안동 하회마을 내 병산서원 임시주차장 기간 연장** ○ 신청위치: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 15-16(1,610㎡) ○ 사업내용: 임시주차장 기간 연장 - 주차면수 47면 ※ 토지소유자와 농지임차계약 재체결, 농지용도변경 허가완료 - (당초) `23.11.20.~`25.11.19.→(연장) `25.11.20.~`27.11.19.	○ **조건부 허가**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 원안접수 10명